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3월 2일)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연기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결정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유례없는 봉축 연기…"코로나19 극복 함께"

종단협 18일 발표… 봉축법요식 윤4월 8일에 봉행

4월 30일 기도 정진 입재
연등회는 5월 23일로 연기
"국민과 함께 극복해나갈 것"
코로나19 따른 탄력적 운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개최를 비롯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앞둔 불교계가 유례없는 한 달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문 폐쇄와 법회 취소 등 다양한 선제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연간 최대 행사마저 연기하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고려시대 연등회 이후 근현대까지 긴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의 연기 결정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종단협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과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 등 부회장단이 함께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현수막 앞에 선 원행 스님은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법회 등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자제토록 해왔고, 모든 사찰이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제 더 나아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위기로 인한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봉축행사 일정을 윤4월인 5월로 변경해 치를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오는 4월 30일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윤4월 초파일인 5월 30일로, 4월 25일 예정된 연등회를 5월 23일로 일정을 바꿔 개최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 종단협 소속 1만5000개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입재해 한 달간 정진한 뒤 연기된 법요식에서 회향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에는 윤달을 '걸릴 것도 없고 탈날 것도 없는 공달'이라 했다. '윤달을 만나 불공을 드리면 극락세계를 간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앞다퉈 모인다'는 옛 문헌의 기록도 있다"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연등회를 윤4월로 연기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기가 종식돼 국민과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길 발원하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계가 주요 봉축행사 연기를 결정하면서 세부적인 행사들도 모두 일정이 변경됐다. 가장 먼저 불교계는 4월 30일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 기도정진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황룡사9층탑 점등식을 봉행한다.

이후 불교계는 각 사찰에서 기도정진을 이어가며, 5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국대 대운동장과 종로 일대서 어울림마당 및 연등행렬을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행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축제형식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행사를 기획키로 했다.

연등회 다음날 진행되는 전통문화마당도 24일 낮 12시부터 문을 열지만,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운영을 예고했다.

가장 주요한 행사인 봉축법요식은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한 전국사찰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난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회향'의 법석으로 마련된다.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나누고,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된다.

원행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조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쏘았는지를 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독 묻은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 불제자들이 이 시대의 만파식적이 되고 팔만대장경이 되겠다. 전국 사찰에서 목탁과 법고를 치고 범종을 울리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로, 1975년 공휴일 지정 이래 가장 빠른 날짜이자 첫 4월의 부처님오신날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2월 말부터 연등회를 비롯한 봉축행사 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인터뷰 2면〉

전국 불자들 코로나 '방역' 나선다

민 · 관 합동방역, 캠페인 등 릴레이 동참

태고종, 진안군서 예방 방역
부산 · 안산 불교계 봉사 나서
"방역봉사 통해 마음 치유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의 방역 봉사가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종무원장 진성, 마이산탑사 주지)은 3월 9일 진안자원봉사센터, 상전 7733부대와 진안군 일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방역은 2인 1조로 스님들과 군인들이 같은 조로 나누어져 소독봉사를 진행했으며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부원장 도홍 스님, 종회의장 법전 스님, 총무국장 행담 스님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과 영산작법보존회 영산스님, 지산 스님,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원 등 1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안읍 13개 행정리 1233호의 상가와 가정을 방문해 집중방역을 실시했다.

진안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번 방역활동은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국민고통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불교계가 관, 군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는 수행도량 보문선원과 승가결사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 3월 8일 안산 월피동 상가건물과 빌딩 50여 곳의 엘리베이터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이사장 보림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불자 30여 명이 동참했다. 봉사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보문선원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사찰 단위의 방역과 함께 불자 개개인의 방역봉사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는 김해에서 주도하고 있는 방역 캠페인 현장에서 방역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총 3차에 걸쳐 방역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차는 각 시설에 대한 전체 소독약 살포, 2차는 소독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한 손잡이와 금속물질에 대한 방역이다. 3차는 바닥에 대한 재소독이다. 현재 15명의 불자들이 이 방역캠페인에 동참 중이다.

현재 방역이 진행되는 곳은 학원과 식당 등으로 방역 활동영상을 통해 업주 및 학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시장에 가니 상인들이 그동안 마음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호소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희망과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꼼꼼하게 방역활동으로 위로를 주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스님은 끝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특히 방역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방역을 시도조차 못하는 곳이 많다. 방역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축표어 '자비로운 마음 꽃피는 세상'

봉축위 3월 18일 발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으로 결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표어는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꽃피워 사랑, 나눔, 행복, 평화가 세상에 피어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꽃에 비유해 함축적으로 표현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으로 선정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봉축위는 이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히 꽃피길 기원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발원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